

### 35. 주물업체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렴

성별 남 나이 58세 직종 주물공 업무관련성 낮음

**1. 개요:** 근로자 손○○는 56세 때인 2005년 3월부터 주물업체 S사에서 근무하다가, 2005년 4월부터 대학병원에서 폐렴, 만성 기관지염 및 폐기종으로 진단받았다.

**2.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:** 근로자는 수도나 가스 배관을 연결하는 부속품인 flange를 제조하는 주물 사업체에서 20일정도 근무하였으며, 컨테이너 박스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작업하였다. 작업환경측정자료는 없었으며, 이전에 작업하였던 사업체도 제조방식은 유사하였다. 1986년부터 약 10년간 가스렌지 부속품을 염산, 가성소다, 유산, 초산, 크롬산 등의 약품에 담가 도금하는 작업을 하였다.

**3. 의학적 소견:** 근로자는 5-6년 전부터 감기에 자주 걸리고, 감기에 걸리면 숨이 차던 상태에서 2005년 4월 시작된 기침/흉통/오한/발열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흡곤란 및 피부발진이 나타났고, 우측 폐야에 대엽성(lobar) 폐렴 소견이 나타났다. 객담 배양 검사에서 *Pseudomonas aeruginosa* 및 *Serratia marcescens*, *Acinetobacter baumannii* 및 *Chryseobacterium meningosepticum*이 동정되었으며 괴사성 폐렴, 지역사회 획득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증후군 등으로 진단되었다. 근로자는 1년간 치료 후 완치된 폐결핵 이외에는 특별한 호흡기 질병력이 없다. 1970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 4월 22일까지 하루 2/3 갑 정도 흡연하였고(의무기록상에는 하루 1갑 30년), 음주력은 매일 소주 1-2병을 30년 동안 하였다.

**4. 결론:** 근로자 손○○는,

- ① 객담의 세균 배양검사서 *Pseudomonas aeruginosa*, *Serratia marcescens*, *Acinetobacter baumannii* 및 *Chryseobacterium meningosepticum*가 동정된 폐렴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으로 진단받았는데,
- ② 업무 중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수준이나 기간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할 만하지 않고,
- ③ 이미 5-6년 전부터 감기에 자주 걸리면서 감기에 걸리면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보이므로,

근로자 손○○의 폐렴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.